

임선구 개인전
《이상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숨은 산 (스틸 컷)
2020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Ed. 1/5

전시개요

전 시 명 : 임선구 개인전 《이상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전시기간 : 2020년 11월 05일(목) - 11월 28일(토)

전시장소 :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종로구 팔판길 22-3)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영상 6점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2020년 11월 5일(목)부터 11월 28일(토)까지 임선구(b. 1990, 인천) 개인전 《이상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다》를 연다. 임선구는 주로 연필로 그린 드로잉 연작을 선보여왔다. 흑연의 강약을 탁월하게 조율하여 심도 깊은 화면을 만들어낸다. 신화와 종교, 원시 신앙을 연상시키는 형상이 어우러져 낯설고 신비로운 장면이 된다. 임선구는 스스로의 잠재의식에 관심을 둔다. 유년의 기억, 수집한 이야기들을 소재 삼아 종이 위 세상을 구축해간다. 이번 전시는 그가 최근 제작한 영상 작품 6점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신작에서 재료와 형식의 변화가 돋보인다. 영상 작업을 새롭게 시도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드로잉 속 요소들은 고정된 화면에 머물지 않고, 여러 장면을 넘나들며 관점을 확장한다. 개인의 의식이 더욱 큰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일부라는 생각에서 착안한 연작이다. 작업의 세계관을 넓히고자 한 면모다. 흑백의 화면에 색채를 도입한 것도 최초다. 흑연과 물감, 오일 파스텔 등의 재료가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효과를 살피고자 했다. 다양한 물성을 탐구하는 회화적 실험의 일환이다.

2. 주요 작품 및 전시 전경

■ 주요 작품



숨은 산 4 (스틸 컷)
2020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Ed. 1/5



숨은 산 1 (스틸 컷)
2020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Ed. 1/5



유해의 폭포 (스틸 컷)
2020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Ed. 1/5

■ 전시 전경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Installation view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Installation view

3. 작가 소개

임선구는 1990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2014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한 후 2019년에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갤러리조선(서울)에서 첫 개인전 《종이 위의 검은 모래》을 개최했다. 아카이브 봄(서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양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안산) 등에서 연 단체전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다. 2017년 일현 트래블 그랜트 특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양주)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4. 전시 서문

종이에 묻은 일들

박미란 | 큐레이터

종이로 만든 세상이 움직인다. 분주한 인형극 같다. 아날로그에 가까운 디지털 화면 속, 흘러가는 시간과 사건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곧 잊히고 마는 잔상을 되새긴다. 임선구는 사라지는 것들을 눈여겨 본다. 때로 부재는 존재보다 완벽하다. 기억은 바닥없는 거름망처럼 대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수식한다. 투과하지 못한 나머지가 여과지 위에 남는다. 밀려난 무의식의 건조한 잔해다. 임선구의 화면은 맑은 기억 뒤에 남은 여과지 같다. 자아를 추궁하고 발굴하여 마주한 장면이다. 종이 위 재가 쌓여 산을 이루고, 다시 한번 무너져 폭포가 된다.

흑연을 종이 위에 매장하듯 새까맣게 몰아붙이다 일순간 단념하고 놓아준다. 부드럽게 쓰다듬고, 세차게 지워낸다. 연필은 그릴수록 뭉툭해진다. 무딘 형상 주위에 감정이 스민다. 임선구는 “모래알들을 모아 곧 무너져 내릴 성을 쌓는다고 생각”¹하며 그림 그린다. 종이 위 모래성은 연필보다 무거운 물성에 의해 곧잘 무너진다. 못 다 메운 여백에 색채가 밀고 들어온다. 유성에 밀린 흑연의 흔적이 종이 위에 부대낀다. 그리고, 지우고, 밀려난 선들이 모여 형태를 이룬다. 신화와 종교, 원시 신앙을 연상시키는 도상이 저마다 모습을 드러낸다.

〈숨은 산〉(2020)은 네 편으로 나누어진 영상 작업이다. 돌무덤이 흩어졌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새가 같은 궤적을 반복해 날고, 사람은 쉼 없이 노동한다. 인물과 짐승, 어둠 속 섬광이 어우러져 기묘하고

¹ 임선구와의 서면 대화, 2020년 10월 24일.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 <유해의 폭포> (2020)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꿈속 장면을 비춘 듯하다. 짐승이 짓고, 종이 울린다. 스미지 못한 의식의 살점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깨어 있는 마음은 사물이 왜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꿈을 꾸는 마음은 이를 흉내 낸다.”² 자유롭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렇지 않은 존재들. 지울 수 없는 부피로 자라난 잠재의식의 세계다.

종이로 지은 임선구의 세상이 끝없이 솟아나고 또 사그라든다. 그림은 서로의 화면을 넘나들며 관점을 확장해간다. 의식 바깥의 진실, 보다 넓은 세계를 인식하려는 태도다. 기억은 불완전해서 유연하며 창의적이다. 자신과 타인의 이야기를 뒤섞어 불분명하고도 풍요로운 사유를 창조해낸다. 의식은 늘 개인과 세상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낯선 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예술에 마음을 투영할 수 있는 이유다. 현실은 매 순간 스러지며 나아간다. 크고 작은 잔상만이 어렴풋이 남는다. 사라짐을 향해 가는 삶의 여정은, 그럼에도 낱알이 의미 있다.

5. 작가의 글

임선구

나는 산속에 있던 크고 무서운 나무를 생각했다. 그 나무는 두 갈래로 길게 갈라져서, 밤이 되면 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해 보였다. 그 다음엔 나무에 목을 매단 남자를 생각했다. 온 힘을 다해 자기 생을 끊어낸 몸은 마치 비닐처럼 흐늘거리는 느낌으로 보여야만 했다. 오래된 기억이나 상상 속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은 머릿속으로 떠올린 형태를 추적해 나가는 행위에 가까워서, 그리기에 못지않게 지워내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고정된' 장면을 그리기 위해 '움직임'을 가하는 나의 손을 빌어, 형태를 이루고 지우는 행위를 축적하는 방식의 그림을 만들어 나갔다.

사람을 지우다가 숲속 모서리에 생긴 지우개 자국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누군가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무덤 앞을 배회하는 남자를 그리다가 지워진 공간에 숨바꼭질을 하러 온 작은 아이들을 그려 넣는다. 내가 검은색으로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위가 기억 속의 사건들을 불러오는 손의 움직임이라면, 그것을 다시 지우고 번지게 하는 행위는 불분명한 기억의 모양을 추적해 나가는 의식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움직임을 부여하고, 재현으로

² J. 앨런 홉슨. 『프로이트가 꾸지 못한 13가지 꿈』. 박소현, 김문수 옮김. (서울: 시그마북스). P. 159.

멈추어진 곳에 환상을 받아들인다. 나는 드로잉이 가지는 과정 중심적인 성격을 활용하면서, 내가 그려내는 행위 자체를 조형의 매체로 삼는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장면 속에는 나의 모습도 있고, 내가 아닌 자의 모습도 있다. 어리석고 비뚤어진 행동을 반복하는 애잔한 풍경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장면의 한구석에 언제나 숨겨져 있다.

나는 여전히 수십 개의 검은색이 변화하는 밤의 형상, 흔들리는 짐승의 눈과 꼬리, 꺼질 듯 말 듯한 전등,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새의 날갯짓 같은 단어를 떠올린다. 내가 그림 속에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들, 무의식중에 튀어나오는 손의 움직임들을 겹겹이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이 작업들은 각각의 시간과 공간이 중첩된 하나의 '움직이는 그림들'로 제작된다. 애니메이션이 가진 마술적 세계에 내가 바라보는 현실의 사건들을 결합 시킴으로써, 이상하고 평화로운 날들의 구석구석을 탐험할 수 있는 작업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6. 작가 약력

임선구

1990 인천 출생
20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졸업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

개인전

2020 이상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9 종이 위의 검은 모래, 갤러리조선, 서울

단체전

2020 전시후도록, WESS, 서울
2019 Y군의 불타는 비행기, lab_203, 서울
2018 페인터스 페인터, 2W (온라인 전시)
2017 일현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2016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퍼스트 에이드 킷, 갤러리 밈, 서울

- 2015 서울문화재단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55, 옛 국세청 남대문 별관 부지, 서울
망각에 저항하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
생성된 풍경, 갤러리가비, 서울
- 2014 DV-VA, 아카이브 봄, 서울

수상

- 2017 특상, 일현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출판

- 『검은 모래』(2019)
공저, 『캐비닛 Vol. 8: 예술가 여행이야기』(일현미술관, 2019)

소장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